

## 강령

우리는  
1. 교육의 자주성 확립과 교육민주화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1. 교육의 주체자로서 학부모의 교육권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1. 자녀들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풍토를 조성한다.  
1. 민주·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여러 단체와 연대한다.

## 학부모신문

학부모의 올바른 교육  
참여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바탕이 됩니다.

발행인: 김완자 발행일: 매월 5일 발행처: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5가22-1(2층) 전화: 02-675-9068 (천리안 ID HAKBUMO) 02-634-6508 02-634-4359 (FAX: 634-4359) 청주 0431-52-9541 (FAX: 0431-55-0354) 군산 0654-42-5310 부산 051-247-1795 (FAX: 051-247-1795) 전주 0652-231-6242 인천 032-525-8342 광주 062-526-6992 (FAX: 062-529-1552) 마창 0551-45-0341 (FAX: 0551-48-6264) 대구 053-781-3911 동해 0394-33-7784 익산 0653-856-0340 울산 0522-46-0677 여천 0662-84-5116



입시 과열 해소, 지역 학교간 교육격차 완화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 받았던 고교 연합교사! 앞으로 고교 입시부활에 따라 아이들은 지금보다 더 공부에 시달리게 되지 않을까 걱정...

## 여수학부모회 창립대회

## 올바른 교육 열어가자

참교육을 위한 여수학부모회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바로 세우고자 지난 11월 18일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교육에 관심있는 지역인사와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이날 창립대회는 1부 창립대회, 2부 초청강연 '학부모회 왜 필요한가' (고진형교육위원)의 순서에 이어 3부에서는 '직녀에게'의 작곡자 박문옥님과 함께하는 노래마당의 순서로 이어졌다.

여수학부모회는 창립선언문에서 '내 자녀뿐이 아니라 모든 우리 아이를 우리의 자녀로 생각하고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함께 올바른 교육을 열어가자고 밝히면서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또 김완자회장은 축사에서 "인간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참교육을 위해 욕심내지 말고 일해 가자"고 얘기하여 큰 박수

를 받았다.

여수학부모회는 지난 9월 30일 학부모회의 필요성을 인식한 8인이 모여 다양한 주제로 론과 강연회를 가졌다. 10월 21일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1월 13일 창립총회를 통해 회칙을 마련하고 임원단을 선출하였다.

앞으로 전국학부모회와 연대하여 학부모권리찾기운동, 출판·홍보·문화사업, 학부모교실 등의 일을 하게 될 여수학부모회를 위해 열심히 일해줄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허성자), 감사(배정옥 조현순), 사무국장(김덕남), 서기(장명순), 홍보부(배운자), 교육부(박미경).

주요기사	3면 인터뷰 - 김 두루한 선생님
	4면 교육관계법 개정
	5면 자녀 성교육, 박물관
	7면 아이 글마당



예술성 높은 세계적 명성의 어린이 책들

## 마루벌의

CD롬에 버금가는 새로운 어린이 책과 (지식의 뿌리), 유아를 위한 철학 교과서 (철학 그림책) 등, 도서출판 마루벌은 한국 아동출판의 새 장을 열어나고 있습니다.

## 어린이 책

## 아름다운이야기(4세부터)

1. 엘로이즈와 늑대
2. 바람개비 아가씨의 신부복
3. 꼬마곰의 외출
4. 분홍빛 새끼늑대
5. 임금님의 간강을 위하여
6. 로보트가 나왔어요
7. 두더지 부부 소동
8. 높은 산의 거인 가족
9. 벌을 따온 아이
10. 야가 야가, 착해져라!



## 지식의 뿌리 (6세부터)

1. 살아 있는 우주
2. 재미있는 미술 여행
3. 인류의 은인, 불
4. 음악, 인간의 오랜 친구



## 떨레꽃을타리 (6세부터)

1. 봄 이야기
2. 여름 이야기
3. 가을 이야기
4. 겨울 이야기



## 마루벌의 좋은 그림책 (4세부터)

1. 행복한 왕자
2. 선인장 호텔
3. 나무늘보야 해엄쳐
4. 사랑에 빠진 개구리
5. 얼마 어디 있어요
6. 세상은 이렇게 시작되었단다



## 철학 그림책 (4세부터)

1. 문이
2. 사냥물 저쪽
3. 빨간 아기토끼
4. 어린이 책에서 다루지 못했던
5. 입양, 전쟁, 운명 등의
6. 깊이 있는 문제를
7. 아름답고 쉽게 엮은 그림책



## 꼭신꼭신아기그림책 (1세부터)

1. 아기곰 두리
2. 아기팬진 빵고
3. 아기코끼리 부바
4. 아기다람쥐 띠띠
5. 아기동물들의 성장 이야기를
6. 통해 아기들에게 이해와
7. 용기를 주는 그림책



■ 참교육학부모회에서 마루벌의 책을 구입하시면, 그 수익금은 본 학부모회 사업에 사용됩니다. (Tel: 02-675-9608)  
■ 12월 31일까지 마루벌의 어린이 책 한 종을 세트로 구입하시면 예쁜 '96년도 마루벌의 어린이 달력'을 증정합니다.  
도서출판 마루벌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40-6 Tel: 02-701-2390 Fax: 701-2395

마루벌 publications

사 설

# 한해를 돌아보며

교육개혁의 구호와 더불어 시작되었던 올 한해 동안, 우리의 교육환경과 사회여건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국민 대다수의 열망인 교육개혁작업은 5.31 교육개혁안의 발표와 더불어 한 때나마 장미빛 환상을 가져다 주는 듯 했으나, 하반기 들어서면서 슬그머니 실종되어 가고 있다. 최근들어서는 노태우씨의 비자금문제의 파문, 5·18학살자 처벌문제로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사이 교육개혁작업은 이미 물건너간 인상마저 던져주고 있다. 입시위주의 교육청산으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인성 및 창의성 교육의 함양을 약속했지만, 아이들은 오늘도 여전히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먼지나는 콩나물고깃국 속에서 주입식 암기식 교육속에 억눌려 있다. 교육공급자간의 경쟁으로 교육소비자인 학생들이 누리게 될 교육의 집이 개선될 전망은 보이지 않는데, 교육공급자간의 경쟁은 아이들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딱딱한 의자에 매어 놓는 보충, 자율학습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참교육의 여건을 만들어주고자 나선 학부모모임인 참교육 학부모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책무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고교평준화 해제에 따른 고교입시부활 반대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올해의 참교육 학부모회 활동은 곧 이은 5.31 교육개혁안의 발표와 더불어 학부모의 교육참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청에 대처해야 했고 이는 정부의 다양한 교육개혁안들에 대한 대다수 학부모의 입장 및 주장의 대변활동으로 표출되었다. 동시에 여러 교육단체 및 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개별 교육개혁안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공청회, 가두서명, 항의시위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왔다. 특히 단위 학교 현장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교사, 학부모의 학교참여방안으로 제시된 학교운영위원회에 올바른 정착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교육당국 및 학부모들에게 학교참여의 바람직한 유형들을 제안하여 공청회 참가자들의 커다란 공감을 얻기도 했다.

하반기 들어서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문제에 참여하기 위한 학부모 활동가들의 양성 및 조직 확대를 위해 교육모니터 강좌, 학부모 상담실 개설을 위한 상담원 1차교육, 안양지회 건설을 위한 공개교육강좌,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문화활동의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역사기행 및 박물관 견학 등 여러 사업을 벌여 오고 있다. 또한 회원들이 정성들여 낸 회비와 수익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사업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사무실을 이전, 학부모 운동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한 준비를 갖춰가고 있다.

올해는 지방자치선거와 더불어 수도권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여소야대의 정국이 창출되면서 시민운동 교육운동의 지평이 넓어지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에 굳게 군립하는 교육관료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민주화과정속에서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들의 민주적 교육참여가 확대될 여건이 성숙해지고 있다.

한 해를 마감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으며 참교육 학부모회가 대내외적으로 영향력과 공신력을 넓히면서 조직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본회로 향하는 회원들의 끊임없는 애정과 참여가 함께 하길 기대한다.

## 지방자치단체 학교급식지원

대전 유성구의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내무부와 지자체의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법제처가 지자체의 학교급식지원을 가능토록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각 시·도의 학부모 부담인 급식후원금 모금을 중단시킬 수 있게 되었다.

법제처의 발표 전 11월 17일 참교육 학부모회 인천지부는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날 인천시내 교육관련 15개 시민단체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설립의 일차적인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복리증진의 중요한 책무를 질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도시락 전쟁' 해소를 위한 시의회의 조례제정 촉구와 시교육청 학교급식에 산 책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도 주장하였다.

## 영어교육 97년 3학년부터

교육부는 지난 1일 초등 영어교육을 현재 1학년이 3학년이 되는 97학년 3학년에서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확정하고 이에 따른 초등 교육과정 개정안을 고시했다.

교육부가 만든 초등영어 교육과정에 따르면 3~6학년에서 주당 2시간씩 5백날할 이내로 의사소통중심의 영어교육을 하게 된다. 평가는 점수가 아닌 서술식으로 하며, 기초적인 생활영어 이해와 표현능력함양을 위해 3학년은 듣기 말하기, 4학년은 듣기 읽기 말하

기, 5.6학년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익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97학년도에는 3학년만, 98학년도에는 3~4학년, 99학년도에는 3~5학년, 2000학년도에는 3~6학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영어교과 신설로 다른 과목시간 수는 줄어들지 않으며 과목수가 9개에서 10개로, 수업시간수는 연간 34~68시간(학교 재량시간 포함) 늘어나게 된다.

## 만 5세아 생년월일 순으로 입학

교육부는 10월 18일 "만 5세 어린이의 조기입학을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허용하겠다"고 확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녀의 취학을 원하는 학부모의 경우 해당지역의 초등학교에

취학신청을 하고 학교장이 생년월일 순으로 입학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조기입학여부를 판별하는 수학능력 시험은 조기과외등 부작용이 우려돼 도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학부모 만평

이숙자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사무실이전식 및 송년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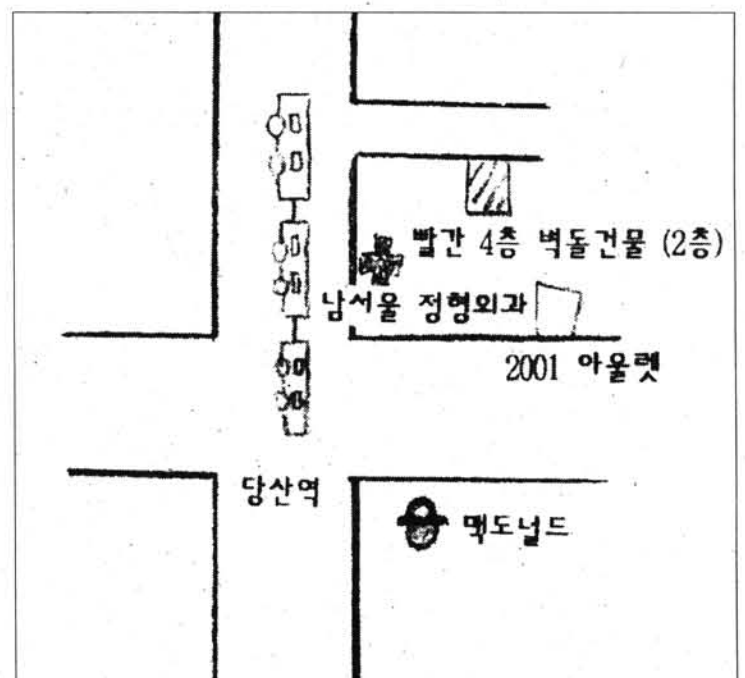
학부모회 운영기금 마련위한 일일호프에 후원해주시고

협조해 주신 회원들과 함께 집들이를 합니다.

일시 :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1시30분

장소 : 학부모회 사무실





인터뷰

장충중학교 김 두루한 선생님을 찾아

## 모두가 바라는 열린 교육을 꿈꾸며



주어진 교육 현실에 대해 불만을 얘기하기 보다 그 속에서 길을 찾아 열린 교육을 실천하는 선생님이 있다. 장충중학교에서 한말글(국어)을 가르치는 김 두루한 선생님이다. 그분을 만나 교육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열린 교육에 대해 들어 보았다.

- 선생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특이한 이름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중등 교육 경력 9년째로 그동안 서울 강북의 저소득층 지역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대학 때부터 우리말 사랑운동을 해 왔고, 현재는 글쓰기 연구회 회원이며 한글 문화원 일도 하고 있습니다.

두루한이란 이름은 '겨레 하나됨과 앞의 두루퍼짐이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삶

을 살겠노라'는 평소 제 생각에 '맞추어 두루와 하나를 합쳐 지은 것이지요.

- 학부모회와 선생님과 만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지난 89년 학부모회가 처음 시작할 무렵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학부모회가 마련한 각종 토론회에 참석했고, 서울 중서부지역 회원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죠. 저를 비롯한 모든 교사들이 학부모 모임에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지혜를 모아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참교육 학부모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 선생님은 집에 글전송을 받을 수 있게 늘 팩스를 열어 놓으신다고요. 그 뜻과 이용자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죠.

요즈음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정보시대입니다. 교육은 정보 전달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런 점에서 교육자는 누구보다 정보를 소중히 여기고 활용에 힘써야 합니다.

저는 올해 여름방학을 앞두고 전송통(팩스)을 마련했는데 학생, 학부모와 글을 주고 받으며 함께 의논할 수 있고 신속히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학교에서 미처 이야기하지 못한 것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털어 놓고 저도 자상하고 체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아주 좋습니다. 아이들이 과제를 전송 뿐 아니라 개인적인 상담까지 해 옵니다. 24시간 긴장된 삶이 아닌가 생각도 들지만 교사가 학생을 먼저 의식하고 지내는 것이 오히려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 선생님의 독특한 수업방식 다시 말해 열린 교육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수업은 교사가 얼마나 준비를 잘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저도 늘 미흡함을 느낍니다. 교사는 학생의 숨은 능

력을 믿고 찾아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주제를 놓고 대화를 해야죠. 여건상 저는 글을 통해 이같은 대화를 실천하려 하는 거죠.

제 수업방식을 세 가지 정도로 설명해 보자면 첫째, '교과서'를 벗어난 수업입니다. 중등학교 실정이 교과서를 너무 강조하고 이를 달달 외우도록 합니다. 이런 것은 학생의 자율능력을 해치므로 올바른 교육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신문, 책, 컴퓨터, 비디오, TV, 라디오 등에서 교과과정에 관계된 최신 정보를 찾아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 스스로 정보를 찾고 활용할 수 있는 길도 가르쳐 주고요.

둘째, 보고서식 숙제를 하도록 합니다. 숙제는 이른바 백작이라 하여 단순 암기를 되풀이한 흔적을 놓고 검사하고 심지어 체벌까지 하는 실정인데요. 이것은 마땅히 학생들이 스스로 정한 주제를 성실히 답한 보고서 형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동안 이런 문제 의식 아래 조금씩 해 오던 것을 올해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제가 맡은 중2.3학년 학생들에게 공책을 활용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예습용의 질문공책, 수업용으로 한말글(국어) 공책, 복습용 열린(종합 보고서) 공책을 마련하여 언제나 정리하는 버릇을 기르고 자기 생각을 펼쳐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문제인데요. 네이나 다섯 중에서 답을 고르는 객관식 시험은 대단히 잘못 된 교육입니다. 세상에 정답이란 그렇게 쉽게 무 자르듯 말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현장에서도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주관식 경우도 그야말로 주관 서술식이 아닌 객관 단답형이라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실기평가라 해서 되도록이면 학생이 스스로 열심히 해 온 보고서(숙제)의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 선생님이 위와같은 수업방식을 실시

함으로써 얻은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무엇보다 현장에서 절실히 느낀것은 평준화 교육의 문제 해결은 '열린교육'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책을 활용한 수업을 통해 아이들의 학습, 생활, 인성지도도 동시에 할 수 있었습니다. 공책에 노력의 결과가 다 들어 있거든요. 아이들의 사고력, 표현력, 발표력도 많이 향상되었죠. 무엇보다 선생님에 대한 친근감, 신뢰감이 커졌다는 것도 큰 소득이죠.

- 요즈음 대부분의 중학생들이 방과 후 학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도 교과서 공부의 반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 학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죠. 이런 학원 교육은 변화되는 평가 방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학원비로 좋은 비디오, 잡지, 신문 구독에 투자하세요. 도서관, 박물관, 기념관 이용도 아주 중요합니다. 주말에는 들로 산으로 나가길 권합니다. 현실성이 없는 얘기로 들릴 지 모르지만 더 좋은 결과를 낳으리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죠.

얼마전 한 모임에서 학부모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학부모들 스스로 '나는 교육의 문외한이다. 내가 무엇을 아느냐'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앞으로 삼갔으면 합니다. 생각을 바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어떨까요? '늘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말자. 많이 듣고, 읽고, 생각한 것을 글로 적어 보자. 혼자 고민하지 말고 비슷한 처지의 학부모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 보자'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구체적으로 독서와 영상교육을 위한 모니터활동을 권합니다. 여러 좋은 단체를 이용해 보세요. 아무튼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는 학부모가 되어 학생, 교사와 함께 참교육의 주체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송주비 기자)

## ◇ 특별기고

초등교사 수업시수는  
주당 19시간으로 법제화 해야

전교조 초등위원회는 초등교사 기준수업시수를 주당 19시간으로 법제화 할 것과 각종 수당에 있어서의 중등교사와의 차별을 철폐하는 청원서명을 지난 10월 말부터 벌여와 현재 1만 8천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당국으로부터 서명포기요구 등 압력에도 불구하고 초등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한 것은 사상최대의 일로 기초교육에 투자를 소홀히 한 정부당국에 대한 누적된 분노의 폭발로 보여진다. 사실 초등교육은 이 나라 교육의 근간이요 주춧돌임을 부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중대성에 반하여 초등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여건들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열악하기 짝이 없다. 현재 초등교

사들은 주당 평균 26시간 수업, 중등은 주당 18.9시간 수업이다.

9개 교과를 가지고 주당 26시간을 하라고 하는 것은 질높은 수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교사의 고민중에 가장 큰 것이 질높은 수업을 하는 일이다. 한시간의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두배의 준비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부끄럽지만 우리 초등교사들은 수업전 지도서 한번도 들여다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어느교사의 하루를 보면 아침에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교통지도나 아침자습을 지도하고 그날 견야아하는 각종잡부금 즉 우유값, 신문값, 예방접종주사, 저축등을 걷는다. (이상하게 잡부금을 걷어

야 하는일이 꼭 발생한다.) 곧 1교시 이후에는 우유급식을 지도하고 아이들이 낸 40-50원의 일기장을 검사하기 시작한다. 아이들이 일기장에 정겨운 선생님의 메모라도 기다리는 줄 뻔히 알면서도 검자 하나만 달랑 쓰고 돌려줄때마다 미안하기 그지없다. 수업이 끝난 오후에는 잡무를 처리하고...

하루종일 혁혁대는 모습이 눈앞에 훤히 다. 한 통계에 의하면 초등교사가 수업연구를 할 시간은 하루평균 20분이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초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과전담제를 3학년 예체능교과와 실과 자연과목까지 확대 실시해 주당 19시간으로 수업부담을 줄여야 한다.

91년 우리 초등교사들과 학부모님들이 함께 요구했던 교과전담제가 현재는 예체능까지만 실시되고 그나마 전담교사가 보결교사등으로 대치되는등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사무직원을 확대 배치해 잡무를 줄여야 한다. 초등의 경우는 작은 학교가 많고 작은 학교일 수

록 사무직원의 배치가 되었지 않다. 아이들을 자습시키고 학교 사무에 매달리는 날도 있다.

교원의 보수는 현재 단일호봉체제이다. 그러나 연구비, 담임업무수당등의 각종 수당이 중등에 비해 적다. 중등에 비해 훨씬 많은 수업과 잡무에 시달리면서 보수까지 차별적으로 받는것은 초등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국민학교는 의무교육이니 만큼 대도시의 육성회비를 전면 폐지하고 국고에서 중등수준만큼 인상해 묵묵히 일하는 초등교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어야 할것이다. 인간중심의 교육보다는 효율을 중시하는 교육풍토, 초등교육을 단지 상급학교 진학의 징검다리 정도로 밖에 여기지 않는 학력위주의 사회풍토는 초등교육의 홀대로 이어져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두세개의 학원을 전전하는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질높은 교육을 하고 학부모들에게 자신감있는 교사로 서고 싶은 초등교사들의 소박한 심정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한남희(전교조 초등위원회)



개정되어야 할 교육관계법 ②

# 중앙정부의 획일적 교육과정 지양해야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지난 호의 개괄적인 교육관계법에 관한 설명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현행 교육과 사립학교법이 교사, 학부모, 학생의 권리보장, 학교교육의 합리적인 운영, 교과과정의 중립성 등 제도적 장치가 민주적인가를 살펴본다.

## 1. 교육법

교육법률용어 현대화, 민주화돼야 한다.

현행 교육법의 법률용어는 오늘날의 세계화, 민주화와는 동떨어진 모호한 용어 사용으로 현실적인 괴리감을 주고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용어인 공민, 구유, 견인불발, 모호한 법률용어인 흥익인간, 성행의 불량 등의 용어사용은 초·중등 교육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데 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현대화, 민주화에 맞는 용어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정부는 교육을 국민 통제를 위해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오직 책임과 의무만을 강조하여 지금까지 교육전반이 국가가 지향하는 이념에 따라 운영되어 진정한 민주시민의 양성이나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교육풍토를 이루어내지 못하였다.

교육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기타 교육시설에 대하여 지도 감독권을 부여하고, 교원의 직무에 대해서도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는 의무만을 규정하여 그 활동영역을 제한하고 있으며, 학교내에서도 학교장이 교사의 직무 전반에 대해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조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이 현행

에서 천명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것으로 개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유치원 1년 의무교육화해야 한다.

중학교의 의무교육 실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유치원의 공교육화도 제도화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취학전까지 1, 2년의 유치원 사교육을 받아야하는 현실에 비추어 사교육비의 비대화에 일조하는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 끌어들이고 초·중·고 교육의 기초교육 강화와 유아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대학의 자율성이 강화돼야 한다.

대학 평의회를 둔다는 규정을 대학교수협의회로 개편하여 교육에 관한 심의, 의결 기구로 법제화해야 한다. 대학의 의사결정이 대학주체라 할 교수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교사, 학부모, 학생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교육법 제74조에는 교원은 교육의 원리와 탐구연마에만 전심전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은 정당활동이나 교육위원, 교육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 대통령직에 출마할 수 없게 되어 있어 현장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있다. 교육의 피선거권과 노동3권, 직무상 부작의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국가는 교사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현행법규를 국가도 일부 책임져야 하며, 교사의 신분도 보장되어야 한다.

제75조의 교육상 필요할 때는 학생에게 징계 또는 처벌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나 이 경우 학부모의 동의나 변론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교육의 주체는 교사, 학부모, 학생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제도의 민주화, 다원화가 필요하다.

현행 제155조에는 교과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하였지만 그보다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위원회를 두어 교과과정의 계획, 편성, 평가에 관한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회도 교과과정에 대한 평가가 주어져야 하고, 학생은 선택교과를 전체 이수교과의 1/3이상으로 하여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제도는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있어 내용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획일적인 교과과정으로 다양하고 독창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 2. 사립학교법

교육의 관할청 지도가 확대되어야 한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특별시, 직할시, 도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규정되었다. 그러나 자치구의 확대로 시·군·구까지 관할이 확대되어야 하고 이는 교육감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의 설치 확대로 지도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사회 구성의 개선과 권한이 축소되어야 한다.

사립학교 이사회의 구성이 친·인척을 중심으로 하는 족벌체제로 각종 비리와 부정의 온상이 되어온 것에 비추어 볼 때 친·인척 구성비율이 축소, 조정되어야 한다. 이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학교법인과 학교에 대해 거의 모든 권한을 장악하고 있어 이의 전횡과 독단을 막기 위해서는 교무회의와 교수협의회가 추천한 이사를 포함시키고 그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권리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교원인사위원회는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만을 인정하고 있고 학교장에 대한 인사와 초·중등학교의 인사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있어 변칙적으로 교원의 인사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초·중등학교에도 교원인사위원회를 두어 교원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임시교원의 채용에 있어 교원의 권리와 신분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임시교원의 채용은 교원이 휴직할 때로 제한해야 하고, 임시교원의 일정기간 동안의 신분보장도 필요하다.

제58조와 61조, 65조의 교원의 직위 해제와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합리적이어야 한다. 단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불량한 자로 규정된 것은 학교장 임의의 생각으로 해직을 권고, 강제할 수 있어 해직의 사유가 불합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를 대학이외의 학교에서도 구성하여 교무회의에서 선출한 교원, 이와 동수의 학교법인 이사,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박인옥 기자 정리)

위 내용은 전교조안과 학부모회에서 토론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 ◆ TV에서 본 이스라엘의 교육

# ‘키부츠의 아이들’

이스라엘의 힘은 교육에서 나온다고 한다. 특히 강인한 지도자와 군인을 키워냈다는 키부츠의 교육은 이상적인 형태에 가까운 유아교육의 모습을 보여준다.

드넓은 자연의 품에서 대가족의 따뜻한 유대 아래 아이들을 길러주는 키부츠는 히브리어로 ‘그룹’이라는 뜻이며, 공동생산과 공동분배를 이상으로 하는 농촌집단촌이다. 키부츠에 속한 사람은 모두 노동의 의무가 있으므로 키부츠의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부모의 곁을 떠나 부모가 돌보게 된다.

‘특별’하다는 개념없이 ‘평등’한 자리에서 동등한 혜택을 받으며 공동의 책임을 지는 것이 키부츠의 정신이므로, 키부츠의 교육을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지역사회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이해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부터 시작되는 교육체계와, 호기심 계발, 감각훈련 등은 약간의 변형을 거치면 우리의 도시 아이들에게도 가능할 수 있는 모습들로 생각된다. 이 프로에서 예를 든 ‘요트바타’

키부츠에서는 10명정도를 하나의 반으로 구성하며 성장단계별로 나누어 유아교육전문가와 부모가 교육을 맡는다. 부모는 아이양육경험이 있는 키부츠의 일원이다.

대학을 졸업한 지 몇년이 채 되지 않는 미혼교사가 대부분인 우리의 유치원과 비교해 보면, 아이양육에 절대적인 경험을 중시하여 어머니들이 갖는 불안감도 상당히 감소할 수 있는 체계이다. ‘아기의 집’의 일과는 규칙적이며 무엇보다 아이가 살고있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점에 중점을

둔다.

생활에서 배움을 끌어내고, 키부츠에 속한 동물, 식물, 건물 등에서도 제대로 받아들이는 감각교육은 윤구병 선생님의 ‘실험학교’ 개념과도 맥락이 이어져 있는 듯하다. 아이들이 자신의 땅을 사랑하고, 그 땅이 우리의 삶으로 가득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점이 그것이다.

키부츠의 교육은 새로운 높이를 끊임없이 발굴해내는 노력을 통해 피부로 통한 감각을 알게 한다. 고물로 가득찬 마당에서는 금지된 장난감(고물

차등)을 맘껏 즐기으로써 상상력과 창조력을 키워나간다.

우리의 유치원 교육은 주로 유치원 건물안에서의 규격화된 놀이가 대부분이며 바깥놀이라는 것도 이미 설치된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제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다 자유로운 트인 공간에서 상상력을 제한받지 않고 아이들이 직접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제공해주며, 감각놀이를 이끌어 주는 어른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문현주)



## ◆ 가족이 함께 하는 성 이야기(5)

## 분명한 말로 자기 마음 표현하기



윤 양 현(여성학자)

## 4) 자기 마음을 표현할 권리 갖기

수십 년을 살아 가는 우리 인간의 삶은 곧 인간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인간관계 중 연인이나 부부관계는 친밀성과 신뢰감을 가장 기대하게 되는 관계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오랜 기간 사귄 수록 그리고 함께 살아 갈수록 강화되어야 할 친밀성과 신뢰감은 오히려 거꾸로 내리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인과 부부가 점점 타인으로 변하게 되는 근본 이유가 무엇까요? 상대방에 대한 오해

나.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해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오해건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건 간에 이는 모두 자기의 감정과 느낌을 상대방에게 진솔하게 표현하거나 또 상대방의 그러한 감정과 느낌을 존중할 줄 아는 상호 훈련을 쌓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같은 중요한 훈련을 왜 쌓지 못했을까요?

다섯살 된 자녀를(딸이건 아들이건 상관 없습니다) 데리고 나가는 어느 엄마를 관찰해 봅시다.

평소에 그 아이를 아주 예뻐하는 이웃집 아저씨(아줌마)가 그 아이를 보더니 뽀뽀를 해달라고 덤뽀합니다. 그 아이는 쌀쌀맞게 고개를 외면하면서 거절을 표합니다. 이 때 민망해하는 사람은 그 아저씨(아줌마)가 아니라 바로 그 아이의 엄마입니다. 당황한 그 아이의 엄마는 아저씨(아줌마)의 눈치를 살피면서 아이에게 명령합

니다. “왜 그래? 아저씨(아줌마)가 널 얼마나 예뻐해 주는데? 자 얼른 뽀뽀해드려!” 엄마의 힘 있는 손아귀에 끌려 벌써부터 뺨을 들이밀고 있는 아저씨(아줌마)에게 아이는 입술을 짝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부모가 된 우리들도 기억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어린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런 무모한 짓을 서슴 없이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어린 자녀일지라도 자녀가 예스 노를 표현할 수 있다면 이미 자녀의 마음과 자녀의 몸은 부모가 지켜줄 수 있는게 아닙니다. 자녀만이 지킬 권리가 있는 것이지요. 어린 자녀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킬 권리를 나타낼 때 부모는 힘이 되어줄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컸나봐요. 뽀뽀를 좋아하지 않네요.”

어린이의 거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 게다가 여자는 내숭을 떨어야 여자답다고 부추겨온 사회, 바로 여기에서

거절할 줄 모르는 여성들로 자랐을 뿐만 아니라 거절하더라도 내숭떠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고(실제로 그렇게 길들여진 여성들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남성도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는 남성들로 자랐습니다. 여성의 몸과 마음의 상태는 아랑곳 없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요구를 당당하게 해대는 많은 남성들. 당신만을 죽도록 사랑한다, 당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싶다는 남자 앞에서 자기만의 고유하고도 진솔한 느낌조차 가질 수 없는 여성,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아래 자신의 몸과 마음의 주인되기를 포기하는 많은 여성들.

우리 자녀들을 계속 이런 아들과 딸들로 키울 작정인지요?

“네가 7살이 되어서일지 8살이 되어서일지 엄마는 잘 모르겠지만 - 왜냐하면 사람마다 모두 다르니까 - 너를 아무리 예뻐하는 삼촌이라도 너에게 뽀뽀하거나 껴안거나 하는 것이 싫어지거나 부끄럽거나 할 때가 있을거야. 그럴 땐 삼촌

한테 ‘삼촌 나 이제 뽀뽀 싫어’하고 분명히 말해야 돼. 말을 하지 않으면 어른들은 네가 뽀뽀해주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하거든. 네가 분명히 표현을 해야만 어른들은 이제 네가 컸다는 것을 알게 돼. 그래도 네 말을 안들어주면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가 그런 사람들에게 너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해줄게. 너의 몸과 마음은 너만의 것이야. 엄마가 아무리 널 사랑해도 너의 몸을 지켜줄 수 없고 너의 마음과 느낌을 항상 알 수는 없거든.”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고 자란 아들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남성이 됩니다. 아직도 가해자인 남성과 피해자인 여성이 많은 현실 속에서 예스 노우를 분명히 할 줄 아는 아들과 딸로 키우는 것은 그런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난호 가족과 함께 하는 성이야기 연재 번호 (3)을 (4)로 바로 잡습니다.〉

## ◆ 박물관 순례-(10) 교과서 박물관

## 시대따라 변해온 학교교육의 도구 - 역사와 문화배경이 한눈에

교과서 박물관은 지하철 양재역에서 내려 성남쪽으로 가다보면 한국교육개발원이 있는데, 그 건물 신관 3층에 위치해 있다. 이 박물관은 1981년부터 3년간 교과서를 수집하여 개관하였다. 교육은 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한다. 교과서는 학교교육의 도구로 교육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는 그 나라의 문화, 역사, 학문의 발달 또는 국가의 사상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과서의 역사는 약 100년에 불과하다. 갑오개혁 직후, 신교육제도가 시작되고부터 만들어 사용하였다. 역사를 따라 변해온 교과서를 살펴보면 지난 시대의 문화 배경과 가치, 한국인의 사상도 알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우리나라 교과서는 근대 학교체제전환시대, 일제 침략기, 해방 직후 미군정시대와 6·25사변, 1955년 교육과정 선포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시대별로 나뉜다. 박물관에도 수집된 교과서가 시대별로 나뉘어 총 1000여권의 보관되어있다. 우리나라 교과서뿐만 아니라 국제비교연구를 위해 29개국의 교과서 4,751권이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과서는 1895년 구한국 학부에서 편찬

해 발행한 〈국민 소학독본〉으로 근대적인 국가관의 파악과 바람직한 학도상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대조선이라는 표기와 독립국임을 나타내고 있다.

개화기 시대의 교과서에는 어느 시대보다 모범적인 교육세대상과 민족사에 이름을 남긴 인물과 외국의 역사적 인물이 소개되어있다. 이 시대 교육이념인 덕양, 체양, 지양이란 목표 안에서 덕양에 중점을 두어 교육을 하였다.

1905년, 일제 침략시기로 교과서를 식민지 이용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일제 통감부가 목적에 맞는 교과서 편찬을 시작하였다.

식민지 시대의 교과서는 황국신민의 체질화를 위한 교과서였다. 1937년 보급된 조선총독부 발행의 〈조선어독본 권1〉을 보면 문자를 처음 익히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가〉자가 아닌 〈소〉자부터 가르치고 있다. 여기 〈소〉란 일제에 복종을 상징하고 있다. 등이 휘어진 소나무와 절개에 대한 변질적인 버드나무를 대비시킴으로 한국인의 사상을 비하시키려했던 것이다.

해방후 시대에는 6·25전쟁과 미군정시대가 같이 있어 새로

운 교과서 개편과 서양학문이 들어와 다양한 책들이 발간되었다. 1948년 문교부가 펴낸 국민 학교용 1학년 1학기 통합 교과서는 〈바둑이와 철수〉이다.

차례를 보면 ‘영이와 바둑이’, ‘꽃밭’, ‘비행기’, ‘참새’, ‘숨바꼭질’ 등으로 보통 우리가 배웠던 교과서를 생각나게 해준다. 1949년에 나온 〈초등학교 3-1〉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낮에 나온 반달’이 실려있다.

교과서는 시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6·25직후에 나온 교과서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전시생활1-1〉의 ‘비행기’라는 교과서내용에는 ‘부르릉, 부르릉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파란 하늘에 은빛 날개가 번쩍입니다. 모두 다섯 대입니다.’라고 시작되어 있는데 전쟁을 치루고 난 뒤의 반공이데올로기 교육의 강화가 나타나있다.

오늘 날의 교과서를 보면 한 교과목에서도 세분화가 되어있어 한 권이 아닌 여러권으로 나뉘어 있다.

현재 우리의 교과서는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있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 화계에서 교과서 개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제 세계화 국제화에 걸맞고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세울 수 있는 새로운 교과서가 다시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김해순 기자〉



◆ 1950년대 교과서, 서양학문을 소개하는 다양한 책들이 발간되었다.





# 학부모 한마당

독자와 함께 하는 '학부모 한마당'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직접 찍은 교육사진이나 4매의 원고를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보내 주십시오.  
보내실곳=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22-1 (2층) 학부모신문  
독자한마당 담당자 우편번호 150-045  
전화=02-634-6508, 675-9068 FAX=02-634-4359  
전리안 ID-HAKBUMO  
체택 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모니터 교육을 마치고

배불리 먹여주고 깨끗이 씻어주고 그래도 울때는 가끔씩 업어주고 안아주고 하면서 아이 낳아 키우는 것이 참 힘들구나 싶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것들은 한낱 육체노동에 불과했고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많은 어려움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앉아 나를 당황시키기 시작했다. 내가 어? 하고 머뭇거릴 동안 아이들은 내가 준비되지 기다려주지않고 당황하는 내 모습을 흉내내는 것 같아 여간 걱정스러우게 아니었다.

부모노릇도 제대로 하려면 교육에 대한 가치관을 확실히 세우고 전문적인 지식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도 생각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 해야할지 망설이고만 있던 중에 신문의 광고란에서 교육모니터요원 양성강좌가 열린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강좌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나의 고민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점과 이것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일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참가신청을 하게 되었다.

15명 남짓한 강좌의 참석자들은 대부분 나처럼 어린아이를 둔 주부들이었고 교육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학교 교사도 있었다.

강의는 전체적으로 교육에 관계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일반방송, 교육방송, 케이블TV, 신문, 대중문화 모니터운동, 학부모운동 등 각분야의 실무자인 강사들이 전문적인 내용과 더불어

어 정치 현실과의 문제, 왜곡된 구조에서 비롯되는 한계상황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자유롭게 진행되었다. 각 강의 내용들은 서로 별개의 사안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한편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우리의 교육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느껴지는 바가 많았다.

학교내적으로는 표준화되고 획일화되어 있는 교육과정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 정치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아이들에게 미치는 미디어환경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모니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마지막 강의였던 이규환 선생님의 '한국의 교육현실과 학부모운동'은 특히 우리의 교육현실에서 학부모운동의 중요성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어 나와 같이 이분야의 문외한에게는 이론적인 근거를 체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모니터교육을 마치면서 되돌아보면 처음 나의 기대와는 조금 어긋나 보이지만 정말 내가 해야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을수 있도록 '스타트라인'을 그어준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면 성과라 할까? 교육모니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부하면서 세상을 바로 보는 눈도 가질수 있으면 좋겠다.

고연아 (동작구 사당동)

## '광주 비엔날레'를 다녀와서

지난 14-15일 나는 '책읽는 사람들'의 여섯아이를 데리고 빗고을 광주를 찾았다. '비엔날레'라는 이미 익숙해진 말을 되새기며 10년만에 광주를 여행하게 된 것이다.

처음 해보는 기차 여행인 탓에 아이들은 졸곤 신기해 했고 입석의 불편함도 잊은 채 2시간 40분을 지루하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광주에 도착한 우리들은 돌아오는 고속버스, 편을 먼저 예약을 해 놓아서 훨씬 여유로운 마음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식사를 하는데 모두들 친절했고 낯선 곳에 온 손님들을 기쁘게 맞아 주었다. 시내를 돌아보며 아이들은 난생 처음 늦은 밤까지 사람들 속에 묻혀 새로운 도시의 밤을 경험하였다. 그날 밤 우리들은 성룡이 나오는 '썬더 볼트'란 영화까지 보고 호텔로 돌아왔는데 그 때는 벌써 밤 11시가 넘어 있었다. 그래도 내버려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모른체 했다.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는 여행 중 내 마음 한편에도 어느새 동심을 느낄 수 있었고, 교육자로서의 또 다른 역할을 되새기는 시간들이 되었다. 눈을 비비고 일어난 아침, 식탁은 풍성했지만 많이 먹을 순 없었다. 비가 내린 탓일까? 주춤거리다가 낯설은 광주를 밝으

며 행사장으로 갔다. 모두들 눈이 부어 있었지만 새로운 세계를 기대하는 눈빛은 반짝거렸다. 비는 서서히 멎고 있었고 우리가 먼저 들어선 곳은 광주 시립 미술관이었는데 들어가 보는 순간 우리는 입을 벌리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까마득히 높은 계단을 타고 잘 정리된 휴식처, 온갖 꽃 장식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그곳에서 우린 한참을 정신없이 서 있었다.

비엔날레 행사장은 어마어마하게 컸다. 청주의 어린이 회관보다 더 큰 시립미술관을 거쳐 산책로를 따라 중의공원까지 갔다. 그리고 그곳에 이 행사의 핵심 전시장이 바다처럼 넓게 펼쳐져 있었다. 북한 미술 전시관, 세계의상 미술(예술)전시관, 광주 박물관 그리고 비엔날레 전시관이 1전시실부터 5전시실까지 끝없이 자리잡고 있었다. 상상도 못하던 규모에 우린 놀랐고, 또 세계 각국의 작가들이 만든 작품속의 그들의 영혼이 나를 끌어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대부분의 작품들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설치작품이었다. 규모도 커서 10평의 넓은 자리에 한 작품을 설치한 경우도 볼 수 있었다. 공예작품들은 친근하면서 쉽고 재미도 있었다.

구미영 (청주지회)

## 참교육 학부모회에 동참하며

친구들이나 이웃들과 어울릴 때마다 떠오르는 화제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하나?' 하는 문제였다.

항상 나오는 결론은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자. 설사 방법에 실수가 있을지라도 내가 열심히 산다면 그것이 최선의 자녀교육이다" 하는 마음이다. 그럼에도 늘 따라다니는 불안은 '난 열심히 살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열심히 살 것인가?' 이다.

신문에서 다른 나라의 아이들 공부하는 방법을 보면 한없이 부럽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몇몇 엄마가 모여서는 우리끼리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동네지도라도 만드는 작업을 해볼까? 연극이라

도 아이들과 해볼까? 머리를 맞대고 공공거리지만 장소문제, 아이들 나이차 문제, 우리의 의지 부족으로 물거품이 되었다.

그러한 고민을 할 때 우연히 학부모신문을 만났다.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공동체가 있음을 알고 지금은 마음이 든든하다. 마음안에 감춰 둔 작은 불안의 씨앗들을 이제는 숨길 것이 아니라 학부모 모임에 참가하여 함께 마음껏 나누며 우리 아이들을 좋은 세계로 이끌어 주는 그런 부모이고 싶다.

함이성 (인천 남동구)

## 어린이 신문의 전화정보 광고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다. 학교에선 으레 아이들에게 소년신문을 읽힌다. 물론 좋은 일이다. 아이들 역시 그 나라 대로의 정보를 필요로 하고 또 신문 읽기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알 수 있으니 아이들 대상의 신문이 있는 것은 일단 환영한다. 그러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얼마 전 일이다. 전화요금 청구서가 날아왔는데 내역을 보니 무슨 정보이용료가 있는 것이다. 평소엔 정보이용료를 내본 적도 없고, 사실 전화요금에서 정보이용료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 있었다. 일단 뭔가가 착오인가 보다 생각하고 접어들었다가 며칠 후 남편에게 얘기를 했더니 '전화정보서비스'요금이라는 거였다. 나는 특별히 그런 서비스를 받은 바도 없고 또 남편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에게 물어보았다. 아이는 그때서야 조금은 주눅이 든 채 사실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매일 학교에서 받아보는 소년신문의 귀퉁이마다에 적힌 퀴즈며 게임이며 심지어 연예계 소식을 알려주는 전화정보서비스 광고를 보고 너무나 궁금해서 마구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다.

그제서야 소년신문을 눈여겨보니 아이의 호기심을 알 것 같았다. 여기저기 공간이 조금이라도 남은 곳엔 여지없이 아이들을 자극하는 전화게임 번호들이 들어차 있었다.

웬지 씁쓸했다. 한창 스펀지 물 빨아들듯 호기심 많고 예민한 아이들이 보는 신문에 좀더 건전한 광고, 이를테면 책 광고나 연극, 놀이공연, 박물관 안내 등을 실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차라리 속담, 격언, 한자 한 자라도 더 실어주면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련만, 전혀 교육적 효과는 고려하지도 않은 채 광고료에만 눈이 멀어 아무 광고나 마구 실어 내보내는 신문사 관계자들이 너무 야비하게 생각되었다.

물론 신문에 실린 다양한 정보에 비해 전화정보 광고는 일부이고, 그것만을 가

지고 소년신문 전체를 폄하할 생각은 없다. 다만 신문의 한 부분이라도 아이들의 감수성과 호기심을 먼저 생각한다면 유해한 정보 같은 것은 신지 않아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전화정보 광고들 중에서도 건전한 것이 있었다면 문제는 조금 달랐겠지만 유감스럽게도 별로 유익한 건 없었다.)

사실 난 소년신문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다만 어떤 이유에서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매스컴이 건전한 교육철학도 없이 상업적 이익만을 앞세운다면 그것 역시 참교육을 바라는 우리 학부모로서는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키는 책임은 비단 교사나 학부모, 교육부 당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환경, 접하는 문화, 즉 자주 읽는 책이나 신문, 즐겨보는 TV 등 모든 것이 올바른 교육적 시각을 가지고 정보 하나를 제공하더라도 가치관 형성에 바람직한 것일 때 건강하고 밝은 미래 세대를 키워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바른 심성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보다 숙고하는 자세로 아이들의 교육환경, 문화사업을 만들어 가는 건전한 사회이기를 소망한다.

이영미 (중서부 지회)

### 알립니다

1. 학부모 사무실에서 책 빌려 가신 분은 모두 반납바랍니다.
2. 비디오 테일 대여 하신 분 모두 반납 바랍니다.

12월 28일까지 반납해주시고 반납치 않을 경우 전화드리고 벌칙금을 물리겠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자녀와의 올바른 대화법-(14)

# 자녀와의 갈등 해결 존중하는 마음 있어야



시켜줘. (계속 때를 쓴다)

엄마 : 알았다, 알았어.  
너 따로 시켜줄게. 무슨  
아이가 그렇게 엄마 말을  
안듣니? 기집애가 고집불통  
이야. (원망)

제1의 방법은 엄마의 힘  
에 굴복해 아이가 졌지만  
마음 속으로 부모에 대한  
원망이 쌓이게 되고 맙니  
다. 제2의 방법에서는 귀찮  
고 창피한 마음에 아이의  
요구를 들어 주었지만 엄마  
마음 속에 보람이에 대한  
불쾌함과 원망이 남습니다.  
이 두 경우 서로의 감정의  
응어리가 남게 돼 좋은 관  
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3의 방법으로 해결하  
기.

부모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자녀의 욕  
구를 힘으로 누르는 제1의 방법이나 부모의 욕  
구는 억누른 채 자녀가 하자는 대로 하는 제2의  
방법은 양쪽 모두 건강한 문제해결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욕구가 서로 부딪칠 때 생기는  
갈등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제3의 방법으로 해  
결할 때 서로의 존중감과 신뢰감을 얻을 수 있  
으며 때로 부모, 자녀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  
습니다. 제3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서 다음의 예문을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름이네가 일요일에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아름이, 보람이 모두 네 식구입  
니다. 6살 짜리 보람이는 일인분의 음식을 남길  
테니 엄마와 나누어 먹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3  
인분만 시켰습니다. 그러자 보람이는 '내 것도  
시켜줘'하면서 발버둥치며 읊니다.

## 제1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법 :

엄마 : 니가 어떻게 다 먹는다고 그러니? 때  
쓰지 말고 엄마 하자는 대로 해!  
보람 : 알았어요. (불만, 원망)

## 제2의 방법 :

엄마 : 음식 남기는 건 나쁜거구 돈만 괜히 아  
깝잖니, 그러니까 엄마랑 나눠먹자.  
보람 : 싫어, 다 먹을 수 있단 말야. 엄마는  
언니께 따로 있는데 내꺼는 없잖아. 나두 내꺼

1. 엄마 : 보람이가 네 것을 따로 시켜주지 않  
아서 속상한가 보구나. (반영적 경청)
2. 보람 : 그래, 언니는 따로 시켜 주잖아. 나  
두 그러구 싶어. (나전달)
3. 엄마 : 보람이도 언니처럼 따로 시켜주었으  
면 하는구나. (반영적 경청으로 보람 욕구파악)
4. 보람 : 그래요, 나두 이제 컸잖아. 그러니  
까 따로 시켜줘. (진정한 욕구 표현-대접받고  
싶음)
5. 엄마 : 아, 너두 언니처럼 대접을 받고 싶  
은가 보구나. (욕구 확인) 그런데 엄마는 니가  
음식을 남기면 아깝기도 하고 돈을 더 쓰게 되  
는 것도 속상하거든. (나전달로 욕구표시)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니 접시랑 숟갈 젓갈  
따로 갖다 달래서 엄마께 나누면 어떨  
까? (해결 방법 제시)
6. 보람 : 싫어. 엄마께 덜어 먹는 건 싫어.  
내꺼 따로 줘. (욕구 충족되지 않아 계속 나전  
달)
7. 엄마 : 엄마께 덜어 먹는 건 니꺼가 아니라  
구 생각되는구나. (다시 반영적 경청)
8. 보람 : 응, 처음부터 내꺼 따로 주세요.  
(나전달)

엄마는 보람이 몫으로 반인분의 음식을 시켜  
주어서 문제를 해결 했습니다. (양쪽 모두 만족  
한 해결)

〈이정진 기자〉

## 아이들 글마당

## 겨울방학이 되면



나는 방학 때

태권도를 배우겠다  
현주누나가 때리면  
나도 때려야겠다  
도현이 형도 이겼다

나는 방학 때  
백두산에 가겠다  
하늘을 보려고  
하늘이 좋아서  
이상철(신명유 지원)

쑥 • 쑥 • 문 • 고 • 8

우주교육 110-080 서울시 종로구 무악동 9-13  
730-1273(영업부)

# 말더듬이 원식이

창작  
동화

우리들의 친구 원식은 말뚱꾸리입니다.  
친구입니다. 그렇지만 마음만은 참 곱고 여린 친구  
하지만 원식은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자기를 믿어 주고 사랑해 주는 선생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말까지 더듬어 늘 따돌림을 받는  
입니다. 단지 아무도 그것을 몰라줄 뿐입니다.



김일광 창작 동화집  
값 4,800원, 176쪽  
.....

늘 용서하고,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세상을 꿈꾸며, 그런 동화를 쓰려고 안타까워하며  
애쓰는 김일광 동화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학부모, 자녀 위한 12월 행사 안내

## 월례회

### 관동 강남지회

총회 및 송년모임  
·일시:12월 20일 10:00  
·장소:방배동 사무실  
·문의:0342) 703-8933 (박이순)  
634-6508

### 울산지회

총회 및 송년회  
일시:12월 12일 12:00  
장소:북경 (주리원 백화점 옆)

### 익산지회

·일시:12월 13일 10:30

·장소:학부모회 사무실  
·문의:0653) 586-0340

### 중서부지회

총회 및 송년모임  
·일시:12월 18일 10:00  
·장소:신촌 사무실 (339-5988)  
·문의:306-5003 (이정남)  
634-6508

### 동북부지회

송년모임  
·일시:12월 15일 10:30-1:00  
·장소:중계동 건영3차 304동  
504호 (김정민 회원 덕)

·문의:939-6857 (윤지희)  
930-6933  
634-6508

### 인천지부

·일시:12월 27일 11:00  
·장소:학부모회 사무실  
·문의:032) 464-3169 (박인옥)  
032) 525-8342

### 대구지부

총회 및 송년회  
·일시:12월 14일 10:00  
·장소:최정숙씨 덕  
·문의:053) 781-3911

### 여천지회

열린자리-실험학교에 대하여  
·일시:12월 7일 10:00  
·장소:전교조 사무실  
\*12월 중에 여천군 화양면으로  
회원 모꼬지를 갑니다.

### 전주지회

어린이 역사기행-태인 칠보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일시:12월 2일 1:30-6:00  
·장소:태인 피향정, 칠보 무성  
서원, 원백암 남근석, 김  
동수 옛집, 김계남 옛집,  
전봉준 장군 생가

·준비물:필기도구  
·참가비:10,000원 45명  
·문의:0652) 231-6242

### 청주시지회

월례회  
·일시:매주 수요일 11:00  
·장소:전교조 사무실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  
회  
·일시:12월 13일 11:00  
·장소:충북 아트홀  
·주최: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청주시민모임

## 알림

### 강서남부지회

신.구회원 만남의 날  
·일시:12월 21일 10:30  
·장소:학부모회 사무실  
·내용:1. 강서남부지회 1년 평가  
2. 임원 선출  
3. 송년회 회식 (떡국먹기)  
·문의:602-5960 (신효종)  
634-6508

### 동북부지회

온몸으로 표현하는 미술특강  
(강사:이선경)  
·일시:12월 29일-2월 2일  
매주 금요일 1:00-3:00  
·장소:상계동 대림APT 1동  
1204호 (강은경 회원 덕)  
·대상:초등 1,2학년 13명  
·회비:30,000원  
·문의:939-6857 (윤지희)  
634-6508

엄마가 배우는 색종이  
작품만들기

(강사:강미자)  
·일시:아이들 미술특강 시간  
(12월 29일-2월 2일)  
·장소:미술특강 바로 옆방  
(강은경 회원 덕)  
·회비:20,000원

### 부산지부

학부모 한마당-송년잔치  
·일시:12월 11일 6:00-7:00  
·장소:YWCA 2층  
·문의:051) 868-9906 (조명숙)

### 금정산 등반

·일시:12월 5일 10:30  
·모임장소:산성 주차장  
·준비물:간편한 복장, 점심

### '95 겨울한새학교

·일시:12월16일-30일  
10:00-4:00  
·장소:부산 교대  
·내용:글쓰기, 그림지도, 풍물,  
각종 소모임 활동  
·준비물:도시락

·대상:초등 1-6학년  
·회비:50,000원 (회원)  
55,000원 (비회원)  
·신청:051) 247-1795 (사무실)  
15일까지 신청하세요.

### 인천지부

노미화 선생님 송별식  
·일시:12월 16일 4:00  
·장소:박인옥 지부장 덕  
·문의:032) 464-3169

교육개혁 시민연대모임 하반기  
평가 및 송년회

·일시:12월 26일 4:00  
·장소:전교조 사무실  
·문의:032) 464-3169

### 마창지회

월례회  
·일시:12월 14일 2:00  
·장소:회원동 사무실  
도서전시회  
·일시:12월 23일-29일  
·장소:미정

## 올겨울 학부모회가 마련한 선물로 정을 나누세요

참교육 학부모회는 다양한 교육강좌, 조직사업 등 날로  
늘어가는 운영비를 회비만으로 충당하기가 어려운 실정  
에서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를 기해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  
습니다. 참교육을 지향하는 학부모운동을 후원하는 마음  
으로 수익사업 물품을 주문해 주십시오.

### ·유자차

본회의 회원들이 유기농법으로 생산된 완도 청정유자를  
사용, 정성들여 만들었습니다. 가격:1.2Kg 8,000원

### ·산하출판 책

학부모운동을 후원하는 의미에서 산하출판사가 학부모 신  
문의 광고로 주는 산하 창작동화들을 10% 할인하여 판매하  
고 있습니다 (본지 8면광고 참조)

·물품주문은 수익사업부 홍수영 간사에게 해 주십시오  
(634-6508, 675-9068)

·주문된 책은 지로용지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유자차는 5명이상 주문하면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 어린이들의 참된 친구 산하어린이 시리즈

이오덕 · 권정생 · 위기철 · 신경림 · 이현주 · 윤기현 · 지동환 · 강정규 · 이재복 · 임길택

## 한국 아동문학을 빛낸 작가들 그들이 바로 <산하어린이> 작가들입니다

전국의 많은 학교와 선생님께서 '학급 문고'와 '독후감 쓰기' 글감으로 자신 있게 추천하는 <산하어린이>는 그 동안  
서울 YWCA, 서울 YMCA, 문화체육부, 어린이도서연구회, 국립중앙도서관, 마산 YWCA, 좋은 책 만들기 운동  
연합회, 창원 YWCA, 군산 YMCA, 어린이 문학 진흥회, 부산 YWCA 등 많은 단체로부터 우수 아동도서로 선정된  
권위 있는 책입니다.

#### ▶ 생활이야기

10 울면서 하는 숙제 이오덕  
11 차돌이는 환경박사 강현아  
16 나에게만 보여 줄게 오민진  
17 비오는 날 일하는 소 한 교실 어린이  
18 공부하는 해 해하 하노 한 교실 어린이  
34 혼자서 크는 아이 어린이 철학교육연구소  
35 날마다 크는 아이 어린이 철학교육연구소  
41 나뭇잎 교실 윤태규  
51 천연 기념물 탐험대 나은경  
61 속담 하나 이야기 하나 일덕연  
72 이오덕 글 이야기 이오덕  
▶ 과학이야기  
34 39 40 과학을 빛낸 사람들 1·2·3 8학년

42 43 재미있는 동물이야기 1·2 오창영  
62 곤충가게 물고 놀이실 실험관찰이야기 김기영  
63 글감없이 파고든 실험관찰이야기 김기영  
64 약학일이 달라붙은 실험관찰이야기 김기영  
▶ 역사이야기  
3 4 5 임제정과 일곱형제들 1·2·3 김우일  
31 서울 600년 이야기 김근태  
50 흥미로운 국보 여행 배봉기  
52 53 꼬마 단군 1·2 정우상  
58 59 60 소년 독립군 주영이 1·2·3 김경민  
83 신기한 세계여행 김윤정  
85 신비한 지구탐험 김윤정  
▶ 인문이야기  
7 전태일 위기철

33 윤동주 정진주  
49 신채호 김서정  
73 목수의 아들 예수 최선주  
▶ 창작동화  
1 참나무 선생님 박상규  
6 서울로 간 허수아비 윤기현  
8 여우야 여우야 뭐 하니 김 목  
9 하늘의 눈물 권정생  
12 해가 뜨지 않는 마을 윤기현  
13 산나는 교실 윤태규  
14 바보와 바보 박상규  
15 생명이 들려 준 이야기 위기철  
19 딸코마이 이상권  
20 하루나라 하루왕 이준연

21 상계동 아이들 노경실  
22 따뜻한 사람 박상규  
23 키다리 종신 장수 아저씨 유재용·이현주 외  
24 도둑 마을 장문식  
25 최초의와 훈장 윤기현  
26 동수의 세번째 비밀 유순하  
27 아기 장수 조호상  
28 고독한 가수와 꼬마배우 이상권  
29 통일은 참 쉽다 동시·동화  
30 섬마을 아이들 신중행  
32 아이쿠나 호랑이 윤태규  
37 어리석은 독재자 윤기현  
44 친구 없는 못살아 이재복  
45 타 고난 재주가 있지요 이재복

46 작다고 값보다 큰코 다쳐요 이재복  
47 이 고집쟁이 좀 보세요 이재복  
48 김철지의 매주종 이재복  
54 팔죽할머니와 늑대 지동환  
55 사장이 된 불행장수 박상규  
56 집을 나간 소년 현 덕  
57 허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 권정생 외  
65 피리 부는 소년 이주홍  
66 67 서울에 온 어린 왕자 1·2 오봉옥  
69 논밭을 아이들 임길택  
70 71 큰소나무 1·2 강정규  
76 흰둥이와 검둥이 이오덕·권정생 외  
79 불귀신 아버지 김학철 외  
80 오아꽃을 넣은 편지 권선자 외

● 산하어린이 · 81

###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달력

재미있는 이야기가 달력처럼 펴여  
있는 이야기 달력

책을 펼쳐면 달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 달력으로 새로운 놀이 · 공부  
달력을 만들어 보세요.  
달마다, 학기마다, 학년마다 알찬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교육문제연구소 글 / 최미숙 그림/값 4,000원

82 비를 부르는 소년 김윤배  
84 동글이와 당글이 홍윤희  
▶ 옛날이야기  
36 민요기행 신경림  
68 얼싸국악이야기 들어보세 김태규  
74 찰싹 우리 악기 배워보세 신장  
▶ 옛날이야기  
2 연오랑 세오녀 조호상  
75 깨비 깨비 참도깨비 김중태  
77 백두산 산삼과 매산이 이야기 동네  
78 천지와 들바들 이야기 동네

도서 출판 서울서 마포구 아현2동 338-10  
산하 TEL 392-7641 FAX 313-2582